

북한병원 방문기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삶의 의욕도 놓치기 쉽다. 행복한 삶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만들고 잘 돌보는 데에 있다. 그러나 세상의 사물은 눈으로 보고 만지고 분석하지만 자신의 몸은 잘 살펴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인지라 언제 질병이 삶을 위협하게 할 지 모른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 못지않게 아픈 몸을 치료하고 질병을 다스리는 의료제도를 잘 정비하는 것도 국가의 중요한 몫이다.

북한은 의료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는 나라이다. 세계 어느 선진국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오래 전부터 '무상 치료제'와 함께 '의사 담당 구역제'를 실시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당국은 정권 초기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뢰를 '토지개혁', '무상치료', '무상교육'에서 얻었다. 실제로 '무상치료'를 달성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있었다. 북한에서는 의사 한 사람이 5~6개 인민반(200~300명)을 맡아 예방 치료를 한다. 왕진 주치의인 셈이다. 또 무의촌을 없애고, 각 리 단위까지 진료소를 만들었다. 전국에 약 7천여 개의 진료소와 40여 개 이상의 종합병원이 있다. 그러나 비용이 과다하게 들자 병원을 짓는 대신 의사들이 직접 왕진을 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담당의사가 인민반 중 한 집을 골라 '위생초소'로 삼고, 주민들이 여기에다 어디가 아프다는 쪽지를 적어두면 의사가 매일 아침 검토하여 진료에 나서게 된다. 주민 전원이 주치의를 갖는 셈이다. 북한 의사들은 희생정신이 강해 주민들로부터 매우 존경받는 사람들이고 자부심도 많다고 한다. 환자에게 기꺼이 자신의 피를 수혈하고, 때로는 피부를 떼어내 이식하는 일도 드물지 않았다.

그러나 오랜 경제난 때문에 북한의 보건의료제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무상치료제', '의사 담당 구역제', '예방의학적 방침'을 헌법에 명시해 두었지만 80년대 중반 동구권에서조차 의약품 수입이 어려워지자 북한 의료체계는 붕괴의 과정에 들어섰다. 북한 최고의 병원들에는 오래전에 멈춰버린 기기들이 즐비하고, 면봉도 소독해 써야 할 만큼 물품은 부족하다고 한다. 전기부족으로 정밀 수술에 필요한 조명도 제대로 켤 수 없다. 시골의 일반 진료소들은 의약품의 부족으로



김훈일 세례자 요한 신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대북지원 소위원회 간사

실질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고, 주민들은 장마당에서 약품을 구입하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의사가 약초 캐기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되었다. 지방의 진료소에서 평양의 중앙병원 의사까지 예외가 없다. 그래서 북한의 의사는 손이 거칠고 손마디가 몹시 굵다. 캐 온 약초는 약제화 과정을 거쳐 양방식 캡슐이나 알약으로 만든다. 북한 의약품의 70%는 이렇게 충당된다. 그래서 북한 의사는 양의라도 고려의학(한방) 의술과 지식을 두루 갖추고 있다.

이렇게 열악한 북한의 의료현실을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기회를 작년 초에 가질 수 있었다. 북한 보건의료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의 협력 사업장을 현장 방문할 기회를 얻은 것이다. 그동안 여러 번 방북했었고 평양 시내의 병원에도 들러 본 적이 있지만 이번 방북이 기대가 되었던 것은 많이 열악하다고 알려진 시골 병원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다. 북쪽 사람들은 자신들의 아픔이 많은 시골 지역은 남쪽 사람들에게는 잘 개방하지 않기 때문이다.

심양을 거쳐서 평양에 도착했다. 여장을 풀고 저녁 만찬을 하며 북쪽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고 서로의 신뢰를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다. 둘째 날 평양 남쪽에 있는 시골 병원으로 출발했다. 끽끔 얼어버린 들판은 너무 추워보였다. 산에 나무가 없는 것을 보면서 올 겨울은 어떻게들 추위를 이겨낼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드디어 평안남도의 한 군 단위 병원에 도착했다. 기와지붕을 한, 4개 동의 건물이 있었고, 200병상 규모의 2차급 종합병원이라고 한다. 군단위의 가장 큰 병원으로 소속된 의사와 간호사는 270명 정도이며 월간 3000명 정도를 진료 하고 있다고 한다. 병원 관계자들의 안내를 받으며 외래진료병동에서 외과와 방사선과를 살펴볼 수 있었다. 생각보다 심각한 병원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북한 당국의 선전과는 달리 북한의 의료장비는 이미 1970년 이전에 멈추어 서 버린 것이 분명했다. 기초적인 진단장비가 너무나 열악했고 소독약 냄새도 나지 않는 것을 보아 진료도 제대로 되지 않는 듯 했다. 엑스레이는 나무상자로 되어 있었고, 사용한 흔적이 별로 없는 산부인과 진찰대와 외과 진료소의 낡은 환경은 이미 기능이 정지된 병원의 모습 그대로였다. 북한 사회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려 노력했고, 되도록 북에 다녀와서도 북한 사람들의 따뜻한 모습을 전하려 노력했지만 정말 열악한 의료현실을 보면서 슬픔이 마음을 가로질렀다. 이 병원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병원건물의 개보수가 우선이라고 한다. 신형 진단장비를 놓더라도 낡은 병원 건물로 인해서 유지보수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다음 진단장비를 보내주어야 하고, 의약품을 지원해야 하고, 병원 소모품을 보내주어야 하고, 남북한 교류가 원활하게 된다면 의학기술을 전해주어야 한다. 총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병원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양에서 가까운 군 단위 2차급 병원이 이렇다면 시골의 진료소들은 사실상 운영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다. 평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다.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이라고 말하는 시절에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했는지 이해가 되었다. 빈곤에 의한 아사자들이 많았다고 알려졌지만 실제적인 죽음은 의료제도의 기능 상실에서 오지 않았나 싶다. 북한의 주민들은 공동체성이 강해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 그런데도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은 영양부족 상태에서 작은 병에도 치료약이 없어서 죽은 것이다. 먹을 것은 나눌 수 있지만 병고는 나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항생제 오남용에 걱정을 하고 있는 판국에 북한은 그 흔한 아스피린 한 알이 없어서 어린 자녀가 죽어가는 것을 그 어머니가 피눈물을 흘리며 보아야 했던 것이다.

오후에는 모란봉 구역 인민병원에 들렀다. 1975년도 병원이 설립되었고, 구역 내 거주하는 13~14만 인구를 대상으로 치료를 전담하는 병원이다. 병원규모는 24개 진료과에 전체 종사자 234명, 의사는 123명이며 260개 입원실을 갖추고 있었다. 연간 외래환자 수는 25만 명이라고 한다. 평양 시내의 진료 체계는 종합 진료소에서 일차 진료를 받고 적극적인 치료를 필요로 할 때는 각 구역의 인민병원으로 보내지고 이보다 더 위중한 병이면 시 병원을 거쳐 중앙병원(적십자병원 등)으로 보내지게 된다. 이 병원은 이미 지원 단체에 의해서 병실의 개보수가 끝났고 엑스레이, 초음파 검사기 등의 진단장비가 설치



01 평양의 내분비연구소 02 지원된 수술실

되어 있었다. 북측 의사로부터 진료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감사의 인사를 들을 수 있었고, 더불어 치료 장비 즉 수술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했다. 서로 필요한 부분들을 상처주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협상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만 더 가까이 할 수 있다면 많은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고 다시 동포들이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지 않도록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음 날은 평양 시내와 근교를 관광하고 중앙병원 급인 조선적십자병원에 들려볼 수 있었다. 조선적십자병원은 4차 진료기관으로 구역 병원을 거친 중증 환자와 응급치료환자 그리고 중앙병원 인근 주민 등을 대상으로 진료와 치료를 한다. 북한은 의료체계상 환자가 병원을 선택할 수 없다. 조선적십자병원에서 안내를 담당하던 정형외과 과장님은 매일 4명 수술, 한 달 외래환자는 1천명 수준이라고 정형외과 병원의 운영을 설명해 주었다. 의사는 50명이고 종사자들은 100여명이라고 한다. 이 병원에도 남쪽의 지원으로 진단장비 증설과 병원 보수가 이루어져 있었다. 중앙급 병원이라 CT 촬영기, 투시경, 재활기구(운동시설), 수술 장비 등이 지원되었다.

평양 시내의 병원에서는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풍겼다. 그래도 평양에 사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진료와 치료를 받는 것 같아 조금 위안이 되었다. 그런데 한 병실의 링거병을 보면서 또 슬퍼진다. 중앙병원급인 조선적십자병원의 링거병이 흔히 쓰는 맥주병을 개량한 것이었다. 의료 현실의 문제가 단순히 병의원의 개보수와 진료장비와 치료장비 그리고 의약품의 지원으로도 풀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이다. 북한 사회의 총체적인 사회·경제위기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황은 결코 개선되기 힘들다. 그렇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 마음부터 고쳐야 한다. 병든 것은 우리 마음이다. 형제의 아픔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이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이기심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

북한에 있는 가난하고 병든 그 동포들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들이 우리의 천사들이다. 그런데 그들을 돕는 일에 무슨 핑계가 있을 수 있는가!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은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민족의 아픔을 치료하는 데 의료인들의 노력이 많이 필요한 시대이다. 참 의술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위로해주는데 있다. 의료인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북한의 병의원을 고쳐주고, 결핵등과 같은 만성적이고 치명적인 전염병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특히 영유아 사망률의 대부분이 만성적인 영양실조와 의약품의 부족에서 온다고 한다.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 남쪽에서는 낙태로 수많은 태아들이 죽고 북한에서는 약이 없어서 우리 민족의 희망인 아이들이 죽어간다. 분단의 현실을 직시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욱 앞장서는 의료인들이 많았으면 한다.